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청소년 모의투표 59.9% 1위

여수 청소년 1318명 참여...정책·공약 직접 살펴 투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이 여수 지역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여수YMCA가 5일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지역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여수시장 모의투표에는 총 131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서영학 당선인이 59.9%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명창환 후보는 19.5%, 원용규 후보는 17.5%로 나타났다.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는 18세 미만으로 실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직접 선택해 보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으로 진행됐다.

여수지역에서는 진성여고, 여선중학교, 여수공고, 화양고등학교 등 학교로 찾아가는 모의투표소와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여문 청소년문화의집 사전 모의투표소, 6월 3일 거북선공원과 웅천천수공원 현장

형 모의투표소를 통해 청소년 참여가 이뤄졌다.

서영학 당선인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직접 선택한 소중한 목소리를 여수시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당선인은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이기 전에 오늘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수, 청년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여수 시민은 변화를 선택했고, 청소년들도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며 "그 선택에 성과와 실력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당선자와 함께 한 팀이 되어 여수의 길을 열겠다"며 "시민주권 여수, 기본사회

여수, 성장하는 여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영학 당선인은 끝으로 "선거는 끝났지만 여수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 청소년의 미래를 키우는 일에만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의투표는 실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정책과 공약을 직접 비교하며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여수YMCA는 청소년의 의견이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문화재단, '2026 아고라 순천' 6월 공연 개최

(재)순천문화재단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2026 향균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6월 공연을 개최하고, 예술과 문화를 통해 시민과 관객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6월 공연은 "향균에, 여름을 흔든다_예술로 울리다"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 순천만국가정원, 문화의 거리, 신대천, 조례호수공원 등 순천 주요 거점에서 진행되며,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어우러진 야외 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6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연이 열리며, 20일에는 신대천 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27일에는 조례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 무대로 탈바꿈시키며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가족센터, 학령기 부모교육 '사춘기 아이, 마음번역소' 운영

광양시가족센터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춘기 아이, 마음번역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8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모와 자녀의 기질 특성을 이해하고 사춘기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5월 22일부터 신청·접수를 통해 선정된 8가정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온라인 기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0일 광양시가족센터 가족상담실에서 부모 대상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부모와 자녀 각각의 기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서로의 성향

을 이해하고, 자녀 행동의 감정과 욕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주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사춘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교육이 가정 내 긍정적인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연주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사춘기를 갈등의 시기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참여자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6월부터 본격 시동

전남 곡성군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색깔을 바꾸는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으뜸마을 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으뜸마을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마을을 아름답고 청정하게 꾸어 나가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청정 자원을 보존해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으뜸마을로 선정된 관내 10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된 사업비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을 환경 정비, 벽화 그리기, 꽃밭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쉼터 조성 등 각 마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

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무너져 가던 마을공동체 의식을 견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말에는 우수 마을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곡성의 모든 마을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지정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월 28일 구례읍 독자지구(405필지 25ha), 봉동3지구 (1,046필지 39ha), 봉서2지구(672필지 30ha), 신월(원방2)지구 (1,159필지 52ha) 등 4개 지구가 전라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월 전라남도에도 지적재조사지구를 신청하여 최종 지구 지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책임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일필지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경계 확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종이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땅의 가치를 올리고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NA 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